

강경지역의 기독교: 초기 역사와 교파별 특성

김 홍 수*

1. 머리말
2. 침례교회의 출발지
3. 감리교회의 발전과 교육사업
4. 일제와 충돌 겪은 성결교회
5. 맺음말

1. 머리말

충청남도 지역의 기독교 선교 양상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은 미북감리교와 남장로교의 선교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침례교와 성결교 역시 기독교 전파 초기부터 이 지역의 기독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교파 교회가 혼재하는 현상은 충청남도 중에서도 강경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 지역 초기 기독교 선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경은 조선후기부터 대구·평양과 함께 우리나라 3대시장의 하나로 논산평야와 호남평야의 농산물과 서해 해산물의 집산지로 각광을 받은 도시였다. 특히 군산~강경간 수로는 금강 수운의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다. 강경은 이러한 지리적 상업적 여건을 배경으로 이미 1890년대부터 선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¹⁾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같은 특징을 가진 강경지역의 기독교

*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1) 송현강, 『대전 충남지역 교회사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47.

전파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2000년에 들어서서 강경의 침례교와 감리교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으며, 교회사 연구자들 중에서는 고성은과 송현강이 강경지역 기독교에 대한 연구물을 남겼다.²⁾ 송현강이 대전·충남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다양한 교파의 대표적인 흔재 지역으로서 강경지역 기독교의 기원을 고찰했다면, 고성은은 강경지역의 교파 교회의 전래와 수용 과정을 분석하면서 상업도시로서의 강경에 주목하여 상업에 종사하던 계층이 기독교 수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 글의 목적은 위 연구들과는 달리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강경에서의 다양한 교파 교회의 유입과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유들로 이 지역 교회들 간에 상이한 전통이 형성되어 가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1920년대까지는 그 전통이 감리교의 교육선교, 침례교의 신앙선교로 나타났으며 성결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경찰 및 학교와 충돌을 겪는 시기를 보냈다.

2. 침례교회의 출발지

강경은 공주·부여와 함께 우리나라 침례교회가 출발한 지역이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클라렌던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신도 엘라 씽을 기념해서 세운 엘라씽기념선교회(The Ella Thing Memorial Mission)는 1895년 폴링(E. C. Pauling) 부부와 아만다 가데린(Amanda Gardeline)을 한국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들은 모두 클라렌던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 고든(Aoniram J. Gordon, 1836~1895)이 1889년에 교회 안에 설립한 보스턴선교사훈련학

2) 전은식, “한국 침례교 선교 근원지에 대한 역사적 연구-대한기독교회 강경교회 설립을 중심으로”(침례신학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승천, “강경 논산지역 감리교회 정착과정 연구”(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고성은, “강경의 개신교 전래와 수용과정,” 『호남교회춘추』(2003년 5월, 11월, 2004년 5월); 송현강, 같은 책; 그밖에도 천주교에 대한 연구로는 박찬식, “한말 강경포 지역의 천주교회와 교안,” 『한국학보』94(1999년 봄); 개교회사로는 강승구, 『강경제일교회 100년사』(기독교대한감리회 강경제일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8)가 있다.

교(Boston Missionary Training School) 출신이었다. 이 학교는 정규신학교에 입학할 학력을 지니지 못했으나 소명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공부와 실제적인 전도훈련을 시켜 보스턴의 외곽지역과 그밖에 다른 지역으로 선교의 역군을 파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³⁾ 엘라씽기념선교회는 1896년에는 스테드맨(Frederick. W. Steadman) 부부와 두 사람의 여선교사 액클스(Sade Ackles)와 엘머(Arma Ellmer)를 한국에 파송하였다. 이들도 보스턴선교사훈련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이처럼 강경의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고든 목사가 세운 보스턴선교사훈련학교 출신 선교사들의 전도활동으로 세워졌으며 그들은 모두 엘라씽기념선교회에서 파송받은 이들이었다.⁴⁾

1895년 서울에 도착한 폴링이 강경에 내려온 것은 1896년이었다. 서울에서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침례를 행했는데, 강경 상인 지병석으로 추정된다.⁵⁾ 폴링은 1896년 2월 9일 강경 북옥동 지병석의 집에서 그의 부인, 아만다 가데린, 지병석과 부인 천성녀 다섯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한국침례교회의 첫 신앙공동체의 탄생이었다. 지병석은 강경에 거주하면서 인천을 오가며 포목장사를 하던 인물로 침례교회가 강경에서 시작된 것은 서울에서 선교사들과 지병석의 만남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이미 다른 교파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엘라씽기념선교회의 취지와 정신에 따라 “오지지역”으로 나아가기로 하고 1896년 초반에 강경으로 자리를 옮겼다.⁶⁾ 이 교회는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충청지역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그 후 폴링 선교사 일행은 북옥동 137번지 일대의 토지 7천 4백여 평을 매입했다.⁷⁾

3) Ernst B. Gorden, *Adoniram Judson Gorden*(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4), 260-274.[허긴, 『한국침례교회사』(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42에서 재인용] 이 학교에 대해서는 Scott M. Gibson, *A. J. Gordon: American Premillennialist*(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1) 참조.

4) 엘라씽기념선교회의 설립과정에 대해서는 “The Ella Thing Memorial Mission,” *The Korean Repository*(July 1896), 205-206 참조.

5) “The Ella Thing Memorial Mission,” 206 그리고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43.

6) F. W. Steadman, “Korea-Her People and Missions,” *The Baptist Missionary Magazine*(November 1901), 674.[허긴, 『한국침례교회사』, 42에서 재인용]

1897년 폴링 부부가 미국으로 귀국하자 공주에 와있던 스테드맨(F. W. Steadman) 선교사는 1899년 공주를 떠나 강경으로 그의 선교거점을 옮겼다. 강경에 온 스테드맨의 선교보고에 따르면, 1900년의 경우 신자들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12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침례를 받고 이미 침례를 받은 기존 신자들과 합류했다. 새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6명(장교환·김치화·김도정·최준명·홍봉춘·고래수)은 임천 칠산교회의 신자들이었다.⁸⁾ 스테드맨의 선교활동은 1901년 3월까지 계속되다가 엘라썩기념선교회의 재정 고갈로 중단되었다. 스테드맨은 1901년 4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원산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펜윅에게 강경·칠산·공주에서의 엘라썩기념선교회의 사업을 이양했다. 스테드맨은 그 후 미국침례교선교사연맹의 일본 주재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190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경과 칠산을 방문하여 전도집회를 가졌다. 이 무렵 강경지역에는 30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1905년 세 번째로 강경을 방문했을 때는 펜윅이 원산에 거주해 등한시됨에도 불구하고 공주·칠산·강경 지역의 침례교 신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펜윅은 1889년 12월 내한한 캐나다 출신의 독립 선교사였다. 신학교육을 받은 일 없이 토론토의 철물 도매업 회사에 다니던 그가 선교에 투신하게 된 것은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사경회(Niagara Bible Conference)에 수차례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경회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교회에 유행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신봉자들이 1883년 이후 15년간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대규모의 종말론 집회였다. 영국의 플리머스형제단(The Plymouth Brethren) 운동에서 시작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계시록 20: 2·4·7)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으로 역사는 점점 타락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타락한 역사는 심판을 받는다는 비관주의적인 역사 이해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⁹⁾ 그리스

7) 1912년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01년 엘라썩기념선교회로부터 강경지역의 선교사업을 인수한 펜윅(Malcolm C. Fenwick)이 소유권자로 기록되어 있다.

8) Steadman, "Korea-Her People and Missions," 674.[허긴, 『한국침례교회사』, 46에서 재인용]

9) 박명수, 『한국교회 부흥운동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124; 류대영, 『미국종교사』(청년사, 2007), 425-426 참조.

도의 복음의 전파로 세상은 진보하며, 따라서 그 뒤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후천년설을 밀어내고 등장한 전천년설은 미국에 전해져, 1875년부터 나이아가라 사경회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다른 세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고든 목사는 무디(Dwight L. Moody), 후일 한국에 피어슨 기념성경학원(1912)을 세우는 피어슨(Arthur T. Pierson) 등과 함께 집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고든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은 이 시대를 변화시켜 매우 좋은 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현재의 최악된 세계로부터 구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펜윅은 1889년 한국을 방문한 후 수년 동안 서울, 황해도 소래, 원산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1893년부터 3년간 미국에서 체류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1896년 다시 내한해서는 원산에서 활동하였다. 펜윅은 이 때도 침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나이아가라 사경회에 참가하던 때만 해도 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과 “승천하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만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¹¹⁾ 펜윅이 엘라쌍기념선교회를 인수받게 된 것은 1894년부터 고든 목사가 운영하고 있던 보스턴선교사훈련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펜윅은 엘라쌍기념선교회로부터 한국선교사로 파송받은 폴링 선교사와 함께 1894년 고든 목사 및 피어슨 목사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다.¹²⁾

1889년 문을 연 보스턴선교사훈련학교는 무디성서학원이나 로스엔젤리스 성서학원처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강경에서 활동한 엘라쌍기념선교회 소속 선교사들과 펜윅이 이런 신학을 가르친 보스턴선교사훈련학교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으며, 펜윅은 선교사훈련학교에서 훈련받기 전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전파한 나이아가라 사경회에도 참석한 바 있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고든의 신학은 펜윅과 엘라쌍기념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을 통하여 강경과 공주·

10) 김용국, “아도니람 저드슨 고든의 신학,” 『역사신학논총』 제4집(2002), 230.

11) 펜윅·허긴 역, 『대한기독교회사』(침례신학대학출판부, 1989), 31.

12)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37.

원산에서 초창기 침례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¹³⁾

엘라쌍기념선교회를 이양받은 펜윅은 1901년 7월 신명균과 함께 강경·공주·칠산 지역을 순방했다. 펜윅은 2개월 동안 이 지역에 머물면서 엘라쌍기념선교회 활동지역을 방문하고 전도집회와 사경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엘라쌍기념선교회의 한국 선교는 5년만에 끝나고 한국침례교는 펜윅에 의해서 지도되기 시작했다. 펜윅은 엘라쌍선교회로부터 이양받은 선교활동을 맡아 관리할 책임자로 원산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신명균을 파견하였다. 신명균은 펜윅이 원산에서 한국순회선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1901년 4월에 만난 인물이었다. 신명균이 강경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펜윅은 신명균과 함께 1906년 10월 강경 침례교회에서 역사적인 최초의 침례교단 총회에 해당하는 제1회 대화회를 창립할 수 있었다. 이 총회에서 펜윅을 초대 총회장격인 감목으로 선출하고 교단 명칭을 대한기독교회라 칭하였다. 이것은 침례교 초기 선교에서 신명균의 역할과 강경교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원산에 본부를 둔 대한기독교회는 1921년 동아기독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침례교회가 이처럼 일찍 강경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신앙선교 및 오지선교의 특성상 침례교회는 지역사회와 깊이 있는 관계를 갖지는 못했다.¹⁴⁾ 펜윅의 신앙선교 및 오지 선교정책은 그가 1894년 캐나다 체류시 몇몇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아 조직한 한국순회선교회(The Korean Itinerant Mission) 선언문에서부터 나타났다. 펜윅 자신이 작성한 이 선언문은 다른 선교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적절하다면서 한국에는 다른 선교회나 현지 선교사들과의 충돌 없이 일할 일터와 여지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면서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오지(奧地)선교”를 강조하고 이 일은 특히 “복음의 직접전파”로

13) 전천년설이 미국의 장로교와 침례교에 큰 힘을 발휘한 만큼 감리교에는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감리교인 가운데 전천년설을 받아들인 주요 인물은 평신도인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뿐이었다. 감리교회는 19세기에 들어서서 빠른 속도로 발전했으며 19세기 말에도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 문화의 진보를 믿고 있었다. 이러한 신학적 차이는 강경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에게서도 드러났을 것이다.

14)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103.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¹⁵⁾ 신앙선교는 특정교단이나 선교회의 지원이 없는 독자적인 선교형태로 정식신학교 출신들보다는 성경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주로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 주력하였다. 침례교의 이러한 신앙선교에는 전천년왕국설까지 그 근저에 깔려 있어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는 등한시되었다.

강경에서 활동한 침례교 선교사와 한국인 전도자

선교사	파송 선교회	활동 내용	활동 시기	한국인 전도자
E.C. 폴링, 아만다 가데린	엘라쌍기념 선교회	봉대교회(강경 북옥동) 설립	1895-1899	지병석, 천성녀
F.W. 스테드만, 새디 에클스, 애르마 엘머	엘라쌍기념 선교회	칠산교회(임천군 칠산리) 설립	1899-1901	장교환, 김치하, 홍봉춘, 고내수, 김도정, 최준명
말콤 C. 펜워	한국순회선교회	강경에서 교단조직(대한기독교회, 1906)	1901년 공주 엘라쌍기념선교회 인수	신명균

3. 감리교회의 발전과 교육사업

(1) 북감리교회와 남장로교회의 강경 선교

미국 북감리교회가 충청도 선교사업을 구상하면서 선교거점으로 삼으려 했던 곳은 공주였다. 북감리교회는 1899년 선교지를 공주에서 강경으로 옮긴 스테드만 선교사와 공주의 선교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15) 허긴, “펜워와 대한기독교회의 오지선교(奧地宣敎),” 「복음과 실천」 제2집 (1998년 겨울호), 169-170.

협상을 1년 반 동안 가진 바 있었다.¹⁶⁾ 그 후 공주에 김동현, 맥길(William B. McGill)에 이어 샤프(Robert A. Sharp)가 파송됨으로써 공주에서의 선교활동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샤프는 1904년부터 충청도 지역을 누비며 선교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1906년 2월 논산과 강경을 순회 전도하는 가운데 은진, 여산 방면을 방문하였다. 그는 이 지역을 여행하는 도중 장질부사에 걸려 3월 공주에서 사망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되어 강경에는 감리교회가 세워진 것 같다. 감리교 선교사 윌리엄스(Frank E. C. Williams)는 1909년 3월호 *The Korea Mission Field*에 실린 글에서 “충청남도에 있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 도시에서 한 교회가 시작된 지는 2년이 조금 못되었다”고 했는데,¹⁷⁾ 상당한 규모의 시장도시가 강경이라면 1907년에 감리교의 강경포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이다. 1908년 3월 열린 미감리회 연회에서 이용주 전도인이 강경에 이미 파송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볼 때 1907년 강경포교회의 설립은 확실해 보인다.¹⁸⁾ 이용주 이후 장로교회와 합병 무렵까지 강경포교회에 부임한 전도인들로는 김씨 성을 가진 조사, 안석호 전도인, 윤인일 전도인, 그리고 왕십리교회에서 활동하다가 1913년 강경포교회에 부임한 김인권 전도인이다.

강경감리교회가 조직되던 1907년 무렵 강경 인근 황산에는 벌써 장로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당시 황산은 강경생활권이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북 여산군 북일면 지역이었다. 호남 전역은 이미 1893년 장로교선교부공의회에 따라 남장로교의 선교구역이었으므로 황산교회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 후 강경을 포함한 은진군은 1907년 남장로교선교부와 북감리교선교부 사이에 맺어진 선교지역 분할협정에 따라 북감리교의 선교구역으로 정리되었다.¹⁹⁾ 따라서 1908

16)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02), 53-54.

17) F. E. C. Williams, “Encouragements among Discouragements,” *The Korea Mission Field*(March 1909), 41.

18) 고성은, “강경의 개신교 전래와 수용과정(1),” 『호남교회춘추』(2003년 5월), 152; 강경포교회의 1901년 설립설에 대한 이견은 강승구, 『강경제일교회 100년사』, 20-23 참조.

19) *Minutes of 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1907), 10.

년 무렵 지금의 강경에는 옥녀봉 침례교회와 중앙동(또는 북옥동)의 감리교회 그리고 황산의 장로교회 등 세 교파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황산교회는 1905~1906년 무렵 남장로교 군산스테이션 소속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다.²⁰⁾ 지금도 강경읍 황산동 105번지에 그 교회 터가 남아 있다. 그런데 황산교회는 설립 7~8년 만인 1913년 선교사들의 양해 아래 강경의 감리교회와 통합되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장로교회가 감리교회로, 또는 감리교회가 장로교회로 그 교파적 정체성이 한 순간에 바뀐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09년 북장로교와 북감리회 선교부 간에 선교지역 분할협정이 체결되면서 당시 괴산·이북(진천·음성·충주·제천·청풍·영춘·단양·괴산)의 충북 북부지역 장로교회들은 감리교로, 보은·이남(연풍·청주·문의·영동·회인·청산·보은·청안·옥천·황간)의 충북 남부 감리교회들은 장로교로 소속 교파를 바꾸었다. 그 이전 충청북도는 대표적인 선교혼재지역으로 한 도시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나란히 서있었다.²¹⁾ 그러나 한국 선교 처음부터 호남(충남 일부)을 선교구역으로 고정했던 남장로교 선교부의 경내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황산교회가 유일한 경우였다.

황산교회 설립의 배경이 되는 남장로교 군산스테이션은 1896년 전킨(William M. Junkin)과 드루(Adamer D. Drew) 그리고 데이비스(Linnie F. Davis)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군산은 인구 500여 명의 작은 어촌이었다. 그런데 벌써 그 1년 후인 1897년 군산교회의 주일예배 참석자는 40여 명에 달하였다.²²⁾ 금강과 만경강을 오르내리며 진료한 드루의 의료선교 때문이었다. 그 후 1899년 5월 군산의 개항으로 그 일대에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선교사들은 기존 시가지에서 동쪽의 구암으로 스테이션을 옮겼다. 그 해 말에는 선교사 불(William F. Bull)이 가세하였다. 군산스테이션의 활동 결과 전북의 서부와 북부 또 충남

20) W. B. Harrion, "Twelve Groups Near Kunsan," *The Missionary*(March 1907) 131-132.

21) 고성은, "충청도 지역 감리교 전래 수용 과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제48호(2001), 20.

22) Mr. Junkin[William M. Junkin], "A Sabbath at Kunsan," *The Missionary*(July 1897), 313.

남부지역에는 앞서의 구암교회를 필두로 여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다. 1903년 현재 군산스테이션 구역 안에는 모두 8개의 교회(구암, 만자산, 남차문, 송지동, 성말, 선돌, 서천, 한산)가 존재하고 있었다.²³⁾ 그 때 황산은 전북 여산군 북일면 지역이었는데, 1903년까지는 아직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여산군까지 미치지 않는 것 같다. 그 교회들은 모두 여산군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04년부터 군산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해리슨(William B. Harrison)의 여산군 응포(곰개)·용안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1905년이였다. 황산교회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잡지인 *The Missionary* 1907년 3월호에 실린 해리슨의 선교보고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06년에 세워진 것 같다.²⁴⁾ 그 교인들은 하루 종일 돛자리를 짜면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예배 처소를 마련하였다. 황산의 교인들은 그 예배당을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두고 감사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1912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황산은 이제 충남 은진군 김포면 강경리에 속하게 되었다. 강경의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그곳과 인접해 있던 여산군 북일면 지역으로 강경 시가지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금강 유역의 대표적 포구였던 강경은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이자 넓은 강경평야를 배후에 가진 곡창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 이후에는 충남 제2의 일본인 거주지로서 식민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원래 1860~1870년대의 강경포 시가지는 현재 강경교 북쪽 불암진(佛岩津)이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지금도 논산군 성동면 개척리 불암으로 그 이름이 남아 있다. 그러다가 남쪽의 옥녀봉 부근으로 외항이 이동하면서 그 밑 북옥동에 이주자들에 의한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시장이 번창하면서 북쪽 북옥동에서 남쪽 홍교동, 중앙동 쪽으로 도시의 팽창이 이루어졌던 것이다.²⁵⁾ 당시 행정구역은 전라도였지만 강경과 바로 인접해 있던 황산 역시 강경 도시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23) *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1903), 54.

24) W. B. Harrison, "Twelve Groups Near Kunsan," *The Missionary*(March 1907), 131-132.

25) 나도승, "금강수운 중계하항의 변천에 관한 연구-강경을 중심으로," 「공주교대 논문집」 제19집(공주교육대학, 1983), 130.

없었다. 황산의 강경 편입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황산은 조선시대부터 호남과 호서의 경계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양호(兩湖)의 선비들이 이곳으로 많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세운 황산서원(현 죽림서원)과 임이정(臨履亭, 사계 김장생의 강학소), 팔괘정(八卦亭, 우암 송시열의 강학소) 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19세기 말 대개 60-70호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황산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강경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황산 사람들은 간혹 황산포에 여각(旅閣)을 설치하고 선상(船商)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금강 하류의 포구상업을 독점하려는 강경 상인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저지되었다.²⁶⁾

(2) 감리교회의 황산교회 흡수와 만동학교

1912년 황산이 강경에 편입되자 감리교 선교사들은 황산교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그들은 1907년 북감리교선교부와 남장로교선교부 사이에 맺은 선교지역분할협정을 근거로 황산(장로)교회를 강경(감리)교회에 통합시켜 줄 것을 남장로교 선교부에 요청하였다. 1907년 협정 당시 강경을 포함한 은진군 전역은 북감리회의의 선교구역이었다. 그 때 황산은 강경에 인접해 있었지만 행정구역상 전북 여산군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황산이 강경에 포함되면서 양 선교부 간에 황산교회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1913년 북감리교선교부는 선교사 스웨일러(Wilbur C. Swearer)와 테일러(Corwin Taylor)로 구성된 대표단으로 하여금 남장로교와 협상하도록 하는 한편 선교부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에도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²⁷⁾ 선교구역의 확정은 이렇게 각 선교부 사이에 예민한 문제였다. 북감리교 선교사들은 1913년 남장로교선교부 연례회의에도 참석하여 황산교회 양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결국 남장로교선교부는 노회에

26) 이영호, “19세기 은진 강경포의 상품유통구조,” 『한국사론』15(1986), 248-249.

27) *Official Journ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13), 44.

감리교도들의 요청대로 충남과 전북의 경계에 따라 황산교회를 강경교회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²⁸⁾ 이 사실이 전북노회에 알려지자 이번엔 노회원들이 반발하였다. 노회석상에서 벨(Eugene Bell) 선교사의 설명이 있었지만 노회장 최대진 목사는 선교부가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을 반복하지 말 것과 향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은 선교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노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⁹⁾ 노회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황산교회는 1913년 강경교회에 합쳐졌다. 이제 통합 강경교회는 180명에서 319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 장소는 구 황산교회당이었던 황금정 105번지였다. 이전 강경교회는 아직 독립적인 예배당이 없어 강경의 활터에 세운 정자 덕유정(德遊亭)에서 모이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⁰⁾ 통합 이전인 1912년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 보면 황산교회가 있었던 황금정 105번지의 소유주는 김재천·김경일·추명삼·김정화·양성률 등 5명이었다.³¹⁾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양성률이다. 그는 원래 목포항의 객주로, 1907년 임성옥·유래춘·서기건 등과 함께 남장로교 목포 스테이션의 영흥학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³²⁾ 또 그는 목포 양동교회의 장로가 되어 1911년 전주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1회 전라노회에 참석하고 있다.³³⁾ 양성률이 왜 목포를 떠나 황산으로 이거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아무튼 그 이후의 노회록에서는 그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1912년 작성된 토지대장에 그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보아 양성률은 1911년 가을에서 1912년 봄 사이에 황산교회로 이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어간에 교회 재산의 공동 소유자가 된 것으로 보아 그의 영향력

28) *Official Journ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14), 37; *Minutes of 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1913), 29.

29) 「예수교장로회조선전라노회 제3회 회록」(1917), 24.

30) 최종순 편기(編起), “*教會略史*”(1943), 4. 미간행 강경제일교회 수기 자료.

31) 토지대장(황금정 105번지, 1912년 8월 30일).

32) 「대한매일신보」1907년 8월 3일; 류승열, “한말 교육운동의 추이와 객주,” 『*역사교육*』81(역사교육연구회, 2002), 160.

33) 차재명 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신문내교회당, 1925), 167.

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황산교회가 위치한 황금정 105번지는 황산의 요지였다. 즉 황산 언덕의 바로 아래 101번지에는 죽림서원이 자리하고 있었고, 바로 그 위 102번지의 주인은 지역유지로 사립 창흥학교 교장이었던 김용환이었다. 또 107번지는 일본인 지역유지였던 弘津愛助의 소유였다.³⁴⁾ 그런데 양성률은 이미 통합 이전부터 강경교회가 운영하고 있던 만동학교 교감으로 선교사를 대신하여 그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³⁵⁾ 그는 목포에 있을 때 직접 영흥학교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영흥학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목포 양동교회의 장로로 시무하였다. 만동학교 역시 황산교회의 예배당을 교사로 사용하게 되었다. 황산교회의 자산과 인적 자원은 이렇게 강경교회에 흡수되었다.

1913년 황산교회를 이양받고 또 그 해 김인권 전도인이 부임한 후 강경포교회는 크게 성장해갔다. 이미 강경포교회는 1908년 남자학교인 만동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학교를 설립한 이는 윌리엄스 선교사였다. 윌리엄스의 사업보고에 의하면, 1911년 “우리의 가장 큰 지방학교”인 강경에서는 46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다.³⁶⁾ 만동학교는 1913년 3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만동학교는 감리교 선교부, 강경교회, 지역유지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양성률에 이어 1920년 도상규가 교장을 맡았다. 학생 수는 1920년에 100명을 돌파하여 1924년에는 180여 명에 이르렀다. 1913년 2월에는 샤프(Alice H. Sharp) 선교사가 송시열의 강학소 팔괘정에서 만동여학교를 시작하였다. 만동학교에 이어 만동여학교를 설립하고 황산교회를 이양받음으로써 1913년은 강경포교회가 강경지역 선교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잡은 해였다. 강경포교회는 1916년 감리교회 청년회인 애플청년회를 조직하고,

34) 「황성신문」1908년 4월 2일, 1909년 5월 21일.

35) 「그리스도회보」1913년 5월 12일.

36)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12), 97. 만동학교에 대한 신문 보도로는 「동아일보」1920년 5월 4일, 1921년 4월 3일, 1921년 4월 26일, 1921년 5월 27일, 1922년 3월 16일, 1922년 3월 30일, 1922년 5월 3일, 1923년 5월 12일, 1923년 7월 13일, 1923년 9월 19일, 1924년 7월 19일, 1926년 5월 25일, 1930년 9월 25일, 1930년 10월 3일, 1931년 3월 24일, 1932년 7월 4일, 1931년 4월 26일, 1934년 11월 28일, 1935년 11월 23일. 그리고 「조선중앙일보」1934년 11월 29일, 1935년 11월 17일, 1935년 12월 24일, 1936년 2월 22일 참조.

1919년에는 황금정 107번지에 건평 50평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였다. 1921년에는 만동학교 부속으로 유치원도 시작하였다.³⁷⁾ 강경교회는 이처럼 교육을 중심으로 선교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1921년 강경 기독교청년회(YMCA)가 조직될 때는 임원진에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참여, 다른 교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강화시켜 갔다.³⁸⁾

감리교의 강경 선교

선교사	파송교단	활동 내용	활동 시기	한국인 전도자
R. A. 샤프	미국 북감리회	은진, 여산 전도여행	1906년 2월(3월 사망)	
		강경포교회 설립	1907년 설립	김조사, 안석호, 윤인일
F.E.C. 윌리암스	미국 북감리회	만동학교 설립	1908년 설립	양성률
엘리스 샤프	미국 북감리회	만동여학교 설립	1913년 설립	
W.C. 스웨어러, C. 테일러	미국 북감리회	황산교회(장)와 강경교회(감) 통합	1913년	김인권 전도인

4. 일제와 충돌 겪은 성결교회

한국에 성결교회의 모체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가 진출한 것은 1907년이였다. 동양선교회는 1901년 일본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던 미국인 카우만(Charles E. Cowman)과 나카다가 조직한 선교단체로 동양에서의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에 진출한 동양선교회는 1907년 5월 서울 종로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일본의 사역은 나카다가 책임지고 카우만은 일본 이외의 해외지역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 상황에서 카우만은 1910년 한국사역을 영국인 토마스(John Thomas)에게 맡겼다. 토마스는 영국에서 성결운동을 이끌던 스타 홀 선교회에서 일하던 인물이었다.

37) 「강경유치원 창립, 사에리시씨 발기로 유치원,」 「동아일보」 1921년 5월 12일.

38) 「황산야소교기독교청년회 창립(강경),」 「동아일보」 1921년 7월 20일.

당시 동양선교회의 조직을 보면 총리는 카우만, 부총리는 킬보른(Ernst A. Killbourne), 일본 감독은 나카다, 한국 감독(superintendent)은 토마스였다. 동양선교회도 펜위의 한국순회선교회처럼 간접선교 방식보다는 신앙선교 방식을 택했다. 신앙선교라는 선교방식과 교파 소속 선교회가 아니라 독립선교회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펜위과 토마스는 공통점을 가졌다. 그러나 토마스는 펜위과는 달리 다른 교파의 선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토마스는 남감리교 선교사로 개성에서 백만 명 구령운동을 주창한 스톡스(Marion B. Stokes)와 가깝게 지냈다.³⁹⁾ 동양선교회는 처음에는 교파나 교회를 조직하지 않고 복음전도 활동만 했다가 1921년에 이르러 복음전도관이란 명칭 대신 성결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정식 교회 조직을 갖추었다.

토마스가 한국선교 책임자로 부임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부여 규암전도관의 조직이었다. 1912년 김성기에 의해 세워진 부여의 규암전도관은 동양선교회가 한국에 다섯 번째로 세운 교회로서, 서울 이남에서는 최초로 설립한 신앙공동체였다. 규암에 이어 머지않아 인근의 은산과 홍산 등지에도 전도관이 세워졌다. 부여에서 복음전도관이 설립된 후 강경에도 동양선교회의 선교활동이 이루어졌다. 토마스와 킬보른 선교사 일행은 1913년 10월 부여에 가는 길에 강경에서 하루 밤 머무는 동안 백여 명의 주민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노방전도를 한 바 있으나⁴⁰⁾ 본격적인 선교활동은 1918년 경성성서학원(현 서울신학대학교)을 졸업한 정달성이 강경에 내려오면서 시작되었다.

강경 복음전도관의 첫 신자는 여학생 한 명이었다. 또 그 후에 들어온 교인들도 남편 또는 부모의 반대로 고통을 당해야 했다. 동양선교회는 1918년 11월 강경을 북정 93번지의 대지를 매입하여 카우만과 킬보른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다. 강경성결교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은 이인범·백신영이 활동하던 1923년부터였다. 강경성결교회에서는 1922년 12월에 매일 새벽 두시 반부터 40여 명이 모여 기도회를 하였는데, 각각 자기의 죄를 통회자복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 새로운 예배당을 건

39) 박명수, “성결교회의 초대감독 존 토마스의 생애와 사역,” 『역사신학논총』 제3집(2001), 94.

40) “A New Station in Korea,” *Electric Messages*(December 1913), 7.

축하게 된 것도 1924년이였다. 강경성결교회의 건축은 “미국에 있는 몇몇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들로 말미암아 건립될 수 있었다.”⁴¹⁾ 당시 교회를 짓는 데는 500불에서 2천 불 가량 들었다. 한옥으로 건축한 성결교회는 1924년 9월 선교사 헤인즈(Paul E. Haines)의 집례로 헌당식을 가졌다.⁴²⁾ 목조와죽 30평 규모의 한옥 예배당은 현재는 북옥감리교회의 소유로 되어있는데, 등록문화재 42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감리교회가 1913년에 기반을 확고히 했다면, 성결교회는 그보다 10여 년 뒤에 강경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였다.⁴³⁾

성결교회는 초기 정착과정에서 두 개의 사건을 경험했다. 하나는 일본경찰이 강경을 방문한 선교사를 구타한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인들 중에 신사참배 요구를 거부한 사건이였다. 두 사건 모두 이제 갖출발한 성결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였다. 정달성 전도사가 교회를 시작한지 수개월 만에 3·1운동이 일어났다. 강경에서는 3월 12일 논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호응하여 그 날 오후 강경 주민과 학생 1백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고 3월 21일 강경 장날에는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다. 강경 만세운동의 중심거점은 옥너봉이였는데, 성결교회는 옥너봉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이런 중에 동양선교회의 토마스 선교사가 강경에 왔다가 구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영국인으로 1910년 내한한 토마스는 서울에서 경성성서학원 원장과 감독을 겸하면서 성결교회의 선교사업을 관장하고 있었다. 그가 신축할 전도관 부지를 둘러보기 위해 강경에 왔다가 일본 경찰과 일인들로부터 일행 두 명과 함께 구타당한 것이다. 3월 20일의 일이었다. 그는 강경을 방문하기 위해 3월 17일 경찰에 여행신고를 하고 3월 20일에는 영국대사관에도 여행신고를 하였다. 3월 21일 토마스는 상경하여 서울 주재 영국대사관 대리총영사 로이드(William M. Royds)에게 가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⁴⁴⁾ 토마스의 설명에 의하면 설교자의

41) “O.M.S. Notes for Prayer and Praise,” *The Oriental Mission Standard* (October 1924), 2.[고성은, “강경의 개신교 전래와 수용과정(2),” 148에서 재인용]

42) “강경교회 헌당식,” 『활천』(1924년 11월), 55.

43) 초기 강경성결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송현강, 『대전 충남지역 교회사 연구』, 152 참조.

집과 전도관 부지를 살펴보고 있을 때 토마스 일행 곁으로 다섯 명의 청년들이 깃발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때 권총을 찬 네 명의 군인이 달려왔고 그들 뒤에 몇 명의 경찰도 따라왔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토마스 일행을 발로 차고 몽둥이로 쳤다. 결국 이 사건은 영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문제로 발전하였다. 이 일로 로이드는 총독부에 5만 불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일제는 토마스에게 한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토마스는 1920년 2월 한국을 떠나야했으며 성결교회는 유능한 선교사 한 사람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동양선교회는 1920년 1월 토마스가 지난 봄에 구타당하여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만을 보도할 뿐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이에 대한 동양선교회의 대응방식은 설립 일 년밖에 안 된 강경교회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당시 강경성결교회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교회 헌당식 직후 강경공립보통학교에서 발생한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있다. 강경에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일어난 시기에는 참배의 강요뿐만 아니라 강제 기부금 징수, 신사설립을 위한 토지의 강제 수용, 신사 도구의 강매 행위도 나타나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다. 사건은 1924년 10월 일어났다. 강경공립보통학교는 그 지역 강경신사(神社) 예제일(例祭日)에 교사의 인솔하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신사에 참배시켰는데, 참배 당일 교회에 나가는 학생 26명이 결석하고 40여명이 행사에 참석은 했으나 참배를 거부한 사건이 일어났다.⁴⁵⁾ 이 사건으로 성결교회 교인이었던 교사 김복희는 휴직처분을 받았고 7명의 학생들은 퇴학을 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독교신보」 등에 보도됨으로써 교회와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 직후에 쓴 사설에서 이것은 일개 강경지방에 한한 국부적 문제가 아니요 “전조선 교육계의 일대 문제”라면서 특히 “기독교 신앙의 중대 관계 문제”임을 주장했다.⁴⁶⁾ 「기독교신보」는 학생들의 퇴교

44) Royds가 3월 24일 Coyngnam Green에 보낸 문서에 첨부된 토마스의 진술서 참조. 토마스의 진술서 전문은 박명수, 『초기 한국성결교회사』(대한기독교서회, 2001), 374-375에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45) 김승태,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231.

46) 사설 “강경공립보통학교의 분규사건,” 「조선일보」 1924년 10월 24일.

사건을 기독교를 꺾박하는 사건으로 보도했다.⁴⁷⁾ 김복희와 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사건은 교회측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신문보도 이상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1922년 이인범 전도사와 함께 강경에 부임한 여전도사 백신영의 영향하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백신영은 3·1운동 직후 상해 임시정부 후원과 군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대한애국부인회에서 활약하다가 체포되었던 인물이었다.⁴⁸⁾ 경성성서학원 졸업생이었던 백신영은 석방 후 다시 목회에 복직하여 강경으로 왔던 것이다. 그의 지도를 받은 강경성결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나 학생들의 신앙과 의식이 어떠한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때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강경에는 이미 신사가 세워져 있었다. 강경성결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참배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그들 중 일부는 퇴학을 당하였고, 이 사건은 강경과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총독부까지 개입하여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다. 강경공립보통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은 한국에서 신사참배 강요가 처음으로 공론화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⁴⁹⁾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까지 다루지 못했던 신사문제가 비로소 언론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신사에 참배하는 일은 일본 황실의 경사 때에도 있었다. 1925년 5월 천황의 은혼식 때에 강경공립보통학교에서 전교생을 신사에 참배시켰을 때 한준석이라는 학생이 이를 거부하여 퇴학을 당하기도 하였다.⁵⁰⁾ 이처럼 강경에서는 1925년에도 신사참배 문제로 퇴학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신사참배 거부가 문제가 되고 있던 1924년 11월 이인범 전도사가 경성지방 동막교회로 이임하고 동막교회에서 시무하던 임종륜 전도사가 강경에 오게 되었다. 임전도사의 부임 직후 강경교회에서는 1925년 1월 일주일간 부흥회를 열었는데, 신생과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가 수십 명이고 새로 믿기로 한 사람도 20여 명이나 되었다.⁵¹⁾ 강경교회는 1928년

47) “不拜他神은 기독교誡오 신교자유는 열국의 공인,” 「기독신보」 1924년 11월 26일.

48) “대한애국부인단 결사대장 백신영 여사 출옥,” 「동아일보」 1922년 4월 22일.

49) 김승태,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234.

50) “강경보교생도 신사참배를 거절,” 「동아일보」 1925년 5월 29일.

51) “강경교회 부흥회,” 「활천」(1925년 2월), 58.

1월에도 지방감리목사 전성운을 강사로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 해 4월에 열린 대전도회에는 매일 밤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고 있다. 또 1929년 8월에 열린 전도회에는 1,0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120명의 결심자를 배출하였다. 그리하여 1931년의 통계에서는 교인의 수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근 병촌교회는 1928년 세워졌고, 개척리 기도소는 1933년부터 강경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37-38년의 충청지방 교회별 지방비분배표(地方費分配表, 지방회에 내는 교회별 부담금)를 보면 강경교회는 대전(특등, 15엔), 역리(1등, 9엔)에 이어 6엔을 납부하는 9개의 2등 교회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38년에는 12엔(특등)의 대전, 역리교회에 이어 은산교회와 함께 9엔을 납부하는 1등교회의 위치에 있었다.⁵²⁾ 일제와 충돌을 겪었던 강경교회는 1930년대 후반까지는 충남의 대표적 성결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190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강경지역의 초기 기독교 전파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은 서구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내한했던 188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 뒤에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은 곳으로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등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강경은 1918년 선교를 개시한 성결교와 1909년 문을 연 후 곧 와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세군 강경교회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1910년 무렵까지는 침례교, 남장로교, 북감리교가 활동하고 있던 대표적인 선교혼재 지역이었으며, 인근에는 천주교회도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강경 인근 여산에 자리잡은 천주교회(나바위성당)에 다니는 강경포 교인의 수는 이미 1898~1899년간에 144명에 이르렀다.⁵³⁾ 이들은 1899년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정도로 조직된 힘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52)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 제5회 충청호남지방회록」(1937년);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 제6회 충청호남지방회록」(1938년).

53) 박찬식, “한말 강경포 지역의 천주교회와 교안,” 69.

선교 혼재 상황은 선교사들 간의 경쟁과 협력을 유발시켰을 것이며 각 교파교회나 선교회의 신학적 역사적 전통에 따라 교회들은 상이하고도 독특한 선교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강경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침례교와 가장 늦게 진출한 성결교는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로부터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선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침례교는 엘라쌍기념선교회에 의해서, 성결교는 동양선교회에 의해서 전도가 시작되었다. 이 선교회들은 신생 선교회였기 때문에 오랜 해외선교의 경험을 갖고 있는 감리교나 장로교에 비해서 선교활동에 난관이 많았을 것이며, 특히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지역 분할협정 하에서 선교활동을 해야 했으므로 그 어려움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선교 혼재 상황 속에서 선교활동의 차이는 침례교와 감리교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시 침례교 계통 선교사들은 역사의 진보를 비판적으로 본 고든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교육 받았고, 또 오지 선교정책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감리교회는 서울과 기타 다른 지역에서 행하고 있던 교육선교(만동학교, 만동여학교, 유치원), 청년선교(엠티청년회와 기독교청년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갔다. 감리교회의 지역과의 유대는 이러한 선교활동이 당시 일간신문 및 교계신문에 종종 보도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1913년 장로교로부터 황산교회를 이양받음으로써 감리교회는 이 무렵부터는 교회 조직에서나 선교활동에서나 강경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발전해가기 시작하였다.

침례교 계통 선교사들은 감리교 선교사들처럼 폭넓은 사회선교 활동을 펼치지는 못했으나 강경에서 교단을 조직할 만큼 강경의 침례교회는 1900년대 초부터 침례교 발전의 중요한 신앙공동체로 성장해 갔다. 동양선교회로 시작된 강경의 성결교회는 기독교청년회(YMCA) 활동을 통해 다른 교파의 교회들과 협력관계를 맺었는데, 이 점에서 침례교와 달랐다. 이런 차이는 당시 성결교회와 침례교회를 이끌고 있던 토마스와 펜윅에게서도 나타났다. 강경성결교회의 특별한 경험은 교회 창립 다음 해에 토마스 선교사 구타사건을 통해 일제 경찰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일과 수년 후에 강경공립보통학교에 다니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학교에서 원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퇴교당한 일이었다. 신사

참배 거부는 1922년 강경에 부임한 여전도사 백신영의 영향 하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들로 큰 어려움에 처했으나 성결교회는 두 사건에 대해서 침묵으로 대응했다.*

참고문헌

- 강승구, 『강경제일교회 100년사』(기독교대한감리회 강경제일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8).
- 고성은, “강경의 개신교 전래와 수용과정,” 『호남교회춘추』(2003년 5월, 11월, 2004년 5월).
- _____, “충청도 지역 감리교 전래 수용 과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48호(2001년 5월).
- 김용국, “아도니람 저드슨 고든의 신학,” 『역사신학논총』4집(2002).
- 김승천, “강경 논산지역 감리교회 정착과정 연구”(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승태,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 박명수, 『한국교회 부흥운동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_____, “성결교회의 초대감독 존 토마스의 생애와 사역,” 『역사신학논총』제3집(2001).
- _____, 『초기 한국성결교회사』(대한기독교서회, 2001).
- 박찬식, “한말 강경포 지역의 천주교회와 교안,” 『한국학보』(1999년 봄).
- 송현강, 『대전 충남지역 교회사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예수교장로회조선전라노회 제3회 회록』(1917).
- 이영호, “19세기 은진 강경포의 상품유통구조,” 『한국사론』15호(1986).
- 전은식, “한국 침례교 선교 근원지에 대한 역사적 연구 - 대한기독교회 강경교회 설립을 중심으로”(침례신학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 제5회 충청호남지방회록』(1937).
-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 제5회 충청호남지방회록』(1938).
- 최종순 편기(編起), “敎會略史”(1943), 미간행 수기 자료.
- 차재명 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신문내교회당, 1925).
- 펜워 · 허긴 역, 『대한기독교회사』(침례신학대학출판부, 1989).
- 허긴, 『한국침례교회사』(침례신학대학출판부, 2000).
- _____, “펜워와 대한기독교회의 오지선교(輿地宣敎),” 『복음과 실천』제2집(1998년 겨울호).
- 「그리스도회보」1913년 5월 12일.
- 「기독신보」1924년 11월 26일.
- 「대한매일신보」1907년 8월 3일.

「동아일보」1925년 5월 29일.

「조선일보」1924년 10월 24일.

「활천」1924년 11월, 1925년 2월.

「황성신문」1908년 4월 2일, 1909년 5월 21일.

“A New Station in Korea,” *Electric Messages*(December 1913).

“The Ella Thing Memorial Mission,” *The Korean Repository*(July 1896).

Gibson, Scott M., *A. J. Gordon: American Premillennialist*(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1).

Harrison, W. B., “Twelve Groups Near Kunsan,” *The Missionary*(March 1907).

Minutes of 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907).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02).

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1903).

Official Journ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13).

Official Journ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14).

Williams, F.E.C., “Encouragements among Discouragements,” *The Korea Mission Field*(March 1909).

투고·접수일 2009.7.10 : 심사완료일 2009.7.25 : 게재 확정일 : 2009.7.28

국문초록

충청남도 지역의 기독교 선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미북감리교, 남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등이 기독교 전파 초기부터 이 지역의 기독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교파 교회가 혼재하는 현상은 충청남도 중에서도 강경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글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강경에서의 다양한 교파교회의 전래와 수용 과정을 살펴보고 이 지역의 교회들 간에 상이한 전통이 형성되어 가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경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침례교 신앙은 미국 보스턴 소재 엘라쌍기념 선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침례교회에 이어 강경에 두 번째 설립된 장로교회는 선교지역 분할협정 때문에 1913년 감리교회에 이양됨으로써 더 이상 존속하지 못했다. 장로교가 사라진 상황에서 선교활동의 차이는 침례교와 감리교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침례교 선교사들은 역사의 진보를 비판적으로 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교육받았고, 또 오지선교 정책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감리교회는 교육선교(만동학교, 만동여학교, 유치원), 청년선교(엡윗청년회와 기독교청년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갔다. 게다가 1913년 장로교로부터 황산교회를 이양받음으로써 감리교회는 교회 조직에서나 선교활동에서나 강경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발전해가기 시작하였다.

침례교 선교사들은 감리교 선교사들처럼 폭넓은 사회선교 활동을 펼치지는 못했으나 강경에서 교단을 조직할 만큼 강경의 침례교회는 1900년대 초부터 침례교 발전의 중요한 신앙공동체로 성장해 갔다. 동양선교회로 시작된 강경의 성결교회는 기독교청년회(YMCA) 활동을 통해 다른 교파의 교회들과 협력관계를 맺었는데, 이 점에서 침례교와 달랐다. 이런 차이는 당시 성결교회와 침례교회를 이끌고 있던 토마스 와 펜윅에게서도 나타났다. 강경성결교회의 특수한 경험은 교회 창립 다음 해에 토마스 선교사 구타사건을 통해 일제 경찰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년 후에는 강경공립보통학교에 다니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학교에서 원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퇴교당한 일이었다. 신사참배 거부하는 여전도사 백신영의 영향 하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백신영은 3·1운동 직후 상해 임시정부 후원과 군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대한애국부인회에서 활약하다가 투옥된 인물이었다.

주제어: 강경, 엘라쌍기념선교회, 펜윅, 신명균, 만동학교, 양성율, 윌리엄스, 정달성, 토마스, 백신영, 강경공립보통학교

Abstract

Christianity in Ganggyeong: Its Early History and Characteristics

Kim Heung-Soo

Unlike other areas,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Baptist church, and Holiness church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formation of Christianity in Chungcheongnamdo from the early period of Christian propagation. The coexistence of various denominational churches was found in Chungcheongnamdo and markedly in Ganggyeong area.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investigate the early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denominational churches in Ganggyeong from 1890s through 1920s, and to analyze the reason why different traditions were made among the churches in this area.

Baptist church, first church in Ganggyeong, was introduced by missionaries of Ell Thing Memorial Mission located in Boston. Presbyterian church, second church following the Baptist church, was handed over to the Methodist church in 1913 because of the division of the mission field between Methodist church and Presbyterian church. Difference in mission works was most conspicuous between Baptist church and Methodist church. Baptist missionaries was not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because of pessimistic premillennialism and faith mission, while the Methodist church built up the close rel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schools and YMCA. Thus, Methodist church began to become a representative church among denominational churches in Ganggyeong.

Baptist missionaries did not involve in social mission activities, but Baptist church was organized as a denomination in Ganggyeong in 1906. Holiness church or Oriental Missionary Society was different from the Baptist church in her cooperation with other churches through the YMCA activities. This difference was showed in John Thomas and Malcolm C.

Fenwick too, leading missionaries of Holiness church and Baptist church. Holiness church in Ganggyeong experienced church-state relations through two accidents: British missionary John Thomas was beaten by soldiers, policemen and the Japanese crowd during his visit to Ganggyeong in 1919. Another incident occurred in 1924 when church school boys, students of Ganggyeong Elementary School, refused Shinto shrine worship in their school.

Key-words : Christianity in Ganggyeong, Ella Thing Memorial Mission, F. W. Steadman, John Thomas, Malcolm C. Fenwick, Frank E. C. Williams, Methodist church, Baptist church, Holiness church, Presbyterian church.